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고양의정소식

2006. 2 세번째호

신년호



기획특집 - 고양시 해외 투자유치 방안

브리핑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문화인 생각 - 설치미술가 홍현숙

포커스 -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한류우드로 거듭나는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며

기관탐방 - 초대형 종합체육·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덕양어울림누리

아름다운 사람 - 소망의 그루터기 모임 대표 송인석씨



원당재래시장



표지사진
행주산성 해맞이 축제모습

시민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고양시의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원고종류: 시, 수필, 공트, 체험수기, 만화 등 제한없음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3~8매
- 접수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의회사무국 고양의정소식지 담당자
- 전화: 031-961-2521-3
- 팩스: 031-967-8045

CONTENTS

시 태양을 마시자-김진영	01
신년사	02
신년메세지	03
기획특집 고양시 해외 투자유치 방안-김진영	0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편집부	08
브리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편집부	11
포커스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편집부	15
기관탐방 그곳이 궁금하다-초대형 종합체육·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덕양어울림누리-손미경	16
문화인 생각 설치미술가 홍현숙-전의숙	18
의정중계석 정례회 및 임시회 안전처리-편집부	20
말 시의원 칼럼-김범수, 심규현, 이재황, 양효석, 정윤섭	24
시민의 소리	29
초점 한류우드로 거듭나는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며-김미정	30
문화산책-편집부	32
고양시 나들이 그곳에 가면 중남미가 보인다 '중남미문화원'-송승환	34
의원소개	36
아름다운 사람 소망의 그루터기 모임 대표 송인석씨-전의숙	38
건강상식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치료해 주세요-손미경	40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고양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마시자

김 진 영 (시인 · 수필가)

새 아침이 밝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루하고
낡은 커튼은
침묵의 지평선 뒤로
던져 버리자.

불게 타오르는 새 희망은
가슴께로 부풀어 오른다.

자 - 우리!
드높고 뜨거운 고양(高陽)의 잔에
소망의 태양을 채우고
함께 러브-샷을 들자.

이제 고양의 하늘에는
고양 세계 꽃박람회,
제 52회 경기도 체육대회,
미디어믹스 타워,
한류 우드 건설 사업이
비행선처럼
하늘 높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들의 精氣 속에 잠자던
역량과 氣像을 모아
뜨거운 열정으로
매진해보자.

태양을 마시자!
브라보를 외치자!

달리자!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꽃과 하나 되는 세상을 향하여
어느 곳보다 따스한 고양(高陽) 길을
함께 달려 가보자!





꿈과 희망의 丙戌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친애하는 90만 고양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丙戌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고양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의회가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고 대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도 어느덧 1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시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책무에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적으로는 끝없이 치닫는 고유가와 약 달러화에 휩쓸려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복핵문제, 불법도청 사건, 사학법 개정과 생명과학에 관한 진위논란 등은 이번 겨울을 어느 때보다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의 자족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기반 구축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丙戌年 새해에는 우리 의원 모두는 다사다난했던 2005년 乙酉年의 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거울로 삼아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고, 90만 고양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굳은 결의와 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여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둘째,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조기능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단한 연찬을 통하여 정책대안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양세계꽃박람회와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국민은 지난 재정파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시일에 국가경제를회복하였음은 물론,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하고, IT 첨단 강국으로 면모를 일신하는 등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90만 고양시민의 역량을 다시 결집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은다면, 미래의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고양시의회 의장



▲ 권봉원 의장 (신원·흥도동)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한 해동안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순배 부의장 (고양동)

병술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 (효자동)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강영모 의원 (일산3동)

고양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반듯하게 일하겠습니다.

▲ 길종성 의원 (탄현동)

병술년 새해에는 항상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 김태임 의원 (마두2동)

새해에는 마음도 푸근하고 주머니도 넉넉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머지 임기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여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 나공열 의원 (창릉동)

시민여러분 가정에 만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엄기창 의원 (관산동)

병술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봉운 의원 (송포·송산동)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이영훈 의원 (능곡동)

새해에는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윤섭 의원 (행신2동)

시민 여러분! 올해는 병술년 개띠의 해입니다. 부지런한 개처럼 더욱 더 노력하는 지역의 역군으로써 부여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조문환 의원 (교봉동)

병술년 새해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 (백석동)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다윗처럼 용기 있고 친절하게, 욥처럼 인내하여 축복받는 2006 년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정무 의원 (대덕·화전동)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계획 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현중 의원 (식사·풍산동)

희망찬 2006 년 병술년 새해에 고양시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뜻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부자되세요.

▲ 김혜련 의원 (화정1동)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윤수 의원 (마두1동)

2006 년 한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맑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기 의원 (행신3동)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배철호 의원 (행주동)

어느새 을유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개의 해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현 의원 (대화동)

2006 년은 고양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기 고양시민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잘 단합하여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2006 년에도 주민의 화합과 단결로 더욱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재황 의원 (성사2동)

고양시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는 병술년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 이택기 의원 (주교동)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웃음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 (행신1동)

고양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여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화정1동)

병술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슴과 손길마다 행운이 넘쳐 나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 강태희 의원 (신도동)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가고 병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술년에는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고 소원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옵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김경태 의원 (성사1동)

그동안 성원해 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주엽2동)

참여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는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살아서 행복하고 고양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박복남 의원 (정발산동)

을유년 한해 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올 한해에도 부단히 노력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 박윤희 의원 (주엽1동)

고양시민 여러분 2006년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경기도체전, 고양세계 꽃박람회,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고양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에도 고양시민의 충실한 대의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건익 의원 (장항1·장항2동)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힘차게 정진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이창원 의원 (일산1동)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최성권 의원 (일산2동)

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해외 투자유치 방안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과천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2위로 높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복지사업 추진과 시 자체의 고유사업 추진에 여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고양시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해외투자 유치로 확보된 자금과 기술로 자치경영을 펼쳐나간다면 지역에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방재정이 튼튼해져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독립적인 지방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효과를 정립하게 될 것이다.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과천시에 이어서 2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전국 72개 시 지역 재정 자립도 평균이 56.2%이다.

과천시가 1위로 95.2%이고, 2위가 고양시로 81.6%이며, 문경시가 15.3%로 제일 낮다.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지역의 경제산업, 취업인구, 소비성향에 따라 지방세 재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의 관건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자연히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서부터 지역 특성을 살리려는 사업전반에 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나아가 지방이 세계화되고자 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비록,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81.6%로 전국 2위라고는 하지만, 100%에 못 미치는 18.4%는 고양시 예산담당자들이 중앙정부 예산회기가 시작되는 5월 전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타내야 한다. 이런면에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실행정수도를 건립하는 충청도 연기군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국내외 해외 투자유치 현황

세계 각국의 해외 투자유치 사례를 살펴보면,

[아일랜드]는 레드카펫 서비스(Red Carpet Service) 즉 최고 귀빈이 방문하면 붉은 카펫을 깔아둠으로써 최대 예우를 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성을 쏟아 투자유망기업들을 귀빈처럼 초청하고 있다.

[영국]의 투자국은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소속의 외국인 투자전담기구를 상설화하고 투자 최적지 안내 및 투자기업이 공장가동때까지 필요한 각종 자문 서비스와 국가 및 지방별 자금지원, 세제, 교육훈련 등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에는 지

역별로 11개 개발청이 움직이고 있다. 또 전국에 36개 투자 장려지구를 지정해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영국내 실업이 많은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서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에 중점지원 하고 있다.

[미국]은 콜로라도주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에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들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상공부 내 6개청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산업개발과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안정과 외화자유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산업개발청(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싼 임금과 자원을 동원하여, 해외 투자유치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혈안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자국 국외교포의 자금을 동원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하므로 경제발전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국내 시도의 해외 투자유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2005 APEC 기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다국적기업과 투자유치 MOU 체결 및 투자상담, 현장 방문을 통한 잠재 투자자 발굴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향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10억 달러의 외국자본을 태안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비롯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두 120개 기업으로 시·군별로 천안 57개, 아산 19개, 연기 11개, 서산·당진 각 7개, 홍성 5개, 예산 4개, 보령 3개

국내외는 자치정부별로 지원조직 상설화, 투자유치지역조성, 세제지원 및 예산과 자금을 동원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선진국 자본과 기술의 국내 확산(spill-over)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내외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재정적으로 자력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LCD, 자동차부품 등 첨단제조업이 38%(46개사)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국가별로는 일본이 43.3%(52개사), 미국 24.1%(29개사), EU 지역 24.1%(29개사) 순으로 투자유치에 성공적이다.

[전라남도]는 국외 향우회 및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불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과 목포 신외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남지역이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투자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도지사가 뛰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지구에 포스코 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2014년까지 총 2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제업무단지에 65층짜리 초고층 빌딩인 아시아트레이드타워 안에 호텔, 백화점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컨벤션센터, 국제학교와 국제병원, 18홀짜리 골프장 등을 완공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는 자치정부별로 지원조직 상설화, 투자유치지역 조성, 세제지원 및 예산과 자금을 동원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선진국 자본과 기술의 국내 확산(spill-over)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내외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재정적으로 자력발전을 꾀하고 있다.

고양시는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해외투자 유치를 꿈꾸고

현재 고양시는 미국 산호세의 첨단기업과 2500억 원의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고양세계 꽃박람회를 통하여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잘 해왔다. 그러나 고양시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해외 투자유치가 더욱 절실하다.

여기에 필요한 고양시의 해외 투자유치 방안이 있다면,



첫째, 해외 투자유치조직의 재정비이다.

고양시에 있는 기업(첨단, 화훼, 방송영상 등) 전문분야 전문가, 대학 연구 조직, 행정, 홍보 지원 등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과 아이디어뱅크인 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양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외 투자유치조직을 강화하고 시장이 진두지휘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에 투자유치부분 베드시스템이 되고 있는 KINTEX 전시관, 세계 꽃박람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일회성 행사위주가 아닌, 해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장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고양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해외 투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네째, 국내 대기업의 테크노 기술연구 밸리를 조성하므로, 남북 통일시대의 한강유역과 임진강 유역의 대단위 해수로 접근시대를 대비한 지역산업크러스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해외 투자유치 사업을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100% 이상의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고양시라는 지방(Locally)이 세계(Globally)화 되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제의 독립적인 지방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효과를 꾀하게 될 것이다.

김진영 편집위원 jykim8135@yahoo.co.kr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집회
(2005. 10. 13)



▲ 행신2택지개발지구 현장 확인 (2005. 10. 13 도시건설위)



▲ 구청 행정사무감사 (2005. 11. 28 덕양구)



육종연구시설 현장 확인 ▶
(2005. 10. 13 사회산업위)



▲ 덕양어울림누리 현장 확인 (2005. 10. 13 자치행정위)



▲ 덕양어르신 금빛제육대회 (2005. 10. 18)



▲ 고양시의회 의원연수(2005,10,28)



▲ 필리핀 알베이주 리가오시 대표단 방문 (2005. 10. 31)

10 Photo

고양의정소식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덕양노인복지회관 기공식(2005.11.4)



▲ 호수공원 나무가꾸기 행사 (2005.11.11)



▲ 설해피해지역 복구 지원(2005.12.27 전남 부안)

상임위원회 활동

고양시의회 4/4분기 회의 일정표

회 차	기 간
제 110 회 임시회	10. 11 ~ 10. 20
제 111 회 정례회	11. 21 ~ 12. 15
제 112 회 임시회	12. 20 ~ 12. 26

의회는 3회에 걸쳐 4/4분기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 상임위 및 특별위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전반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2006년도 예산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1건의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재황/간사:이영훈/위원:강태희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나공열 박종기 이창원

지난 10월 5일 열린 제 109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행정감사는 제 111회 2차 정례회 개최 초반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정함으로써 이 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감사기간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착안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12일 열린 제 11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4개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11월 14일 열린 제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11회 고양시의회(제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12월 2일 열린 제 111회 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예산액은 1,569,498 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230 천원이 증액되었다.

12월 15일 열린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과 의회운영 보조업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였다. 12월 21일 열린 제 112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의정소식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편집위원을 증원하는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위원장: 양효석/간사: 김태임/위원: 강영모 김종성 나공열 박순배 엄기창 이봉운 이영훈 정윤섭 조문환



110 회 임시회에서는 We Start 경기도마을 시범사업지역 선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중산동에 동청사 신축 및 백석동 소각시설 건설 등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덕양구 도내동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매립장 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활용가치가 적어 처리를 보류하였다. 또한, 제111 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본예산 및 심사안건 등을 고려 유효 적절한 감사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111 회 2차 정례회에서는 민속전시관의 관람 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정기 휴관일을 폐지하여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양시 민속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수한 학술, 교육, 연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하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경로당과 장애인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청 및 구청,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이 나왔으며, 집행이 잘못된 사항 24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112 회 임시회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시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낮추는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업별 예산제도 확대시범기관 선정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보호관리사무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 간사: 김혜련 / 위원: 김정무 김현중 박윤수 박종기 배철호 심규현 이택기



110 회 임시회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WTO와 관련된 쌀 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지난 10월 13일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훼단지조성 사업장등 4곳의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점,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

111 회 2차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시청 및 구청, 사업소,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이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총 48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가 18건이고 건의사항은 30건이었다.

112 회 임시회에서는 현재 조성중인 고양 화훼단지를 고양화훼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화훼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고양 화훼산업특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 간사: 김달수 / 위원: 강태희 김경태 김유임 박복남 박윤희 이근익 이창원 최성곤

110 회 임시회에서는 제 111 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진행 및 순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행신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행신동 재건축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확인하였다.

111 회 2차 정례회에서는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과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청 및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112 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고양시 옥외



상임위원회 활동



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 조례로 일원화하는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관리지역인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시 접수된 민원 현황을 파악 불합리성 및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 회 위원장:이택기 / 간사: 김혜련 / 위원: 김태임 박복남 박순배 박윤수 엄기창 이건의 이창원

111 회 위원장:이봉운 / 간사: 길종성 / 위원: 강태희 김범수 김태임 김혜련 박종기 양효석 이건의 이택기 최경식 최성권

112 회 위원장:길종성 / 간사: 김유임 / 위원: 김혜련 나공열 박윤수 박윤희 이재황 정윤섭 최경식



110 회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664억 8,315만 1천원이 증액된 1조 143억 5,643만 7천원 규모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예산을 보완 편성하였으며, 국제전시장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예산편성, 부담금 등 세입재원 변경사항 재조정과 일부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불용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를 재조정하였다.

111 회 2차 정례회에서는 1조 607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시로부터 제출된 총 1조 666억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검토가 부족한 예산과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및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행사성 경비 등 일반회계 58억 6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정된 예산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집행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112 회 임시회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1,370억 1,459만 1천 원이 감액된 8,773억 4,184만 6천 원 규모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과부족이 발생하는 세입을 재정리하고 세출예산도 과부족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의 세입 및 사용액 반납 이월사업비의 승인 등 금년 내로 마무리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한국 국제전시장 개발사업과 관련 지방채 발행으로 승인된 사업비가 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에 반영조치 한 바 있으나, 사업비 지출은 2006년도부터 필요로 하여 이차상환액 등을 고려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년도에 자금을 인수하고자 감액하였다.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고양시의회는 쌀 협상 국회 비준문제로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정부비축미 제도가 시행되면서 쌀 추곡수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고양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WTO와 관련된 쌀 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

오늘 우리의 농업 현실은 황금 들녘의 풍성함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WTO 체제하에서의 쌀 협상 국회 비준문제로 농민을 비롯한 국민과 정치권은 분열하고 있고, 올해부터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가 시행되면서 격정과 분노로 격앙된 농민단체들은 10월 28일 총파업과 1만석 쌀 적재투쟁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 또한 지난 10일부터 벼생산에 들어가면서 수매물량 확보를 위해 농민 간 싸움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고양시에 배정된 정부 벼 수매물량이 지난 해 1만 가마(40Kg 기준)에서 올해 5,000 가마로 줄고, 쌀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을 우려해 단위농협이나 쌀 연구회 등에서도 수매를 줄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WTO 체제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가 농민과 농업,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런 갈등과 불상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고양시 역시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벼 재배농

가가 생산을 중단하고 채소농가로 편입될 경우 채소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며 화훼농가로 이전하는 등 산업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농업 뿐 아니라 이는 환경생태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첫째, 고양시는 농업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고양시민들에게는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고양쌀 지원을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까지 더욱 확대하고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기초지방단체의 경우는 양허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점을 활용하여 고양시의 사례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등 공공부문에서 농업 및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추곡수매 폐지 후 농가의 쌀 수매 감소분을 232개 시군구 초·중·고의 학교 급식시장에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임하는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WTO 정부조달 협정당시 미국, EU, 일본 등은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WTO 제 협상을 통해 한국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초대형 종합 체육,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덕양어울림누리

덕양어울림누리가 2005년 10월 초대형 종합체육시설로 재탄생하여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규모이며, 지역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덕양별무리 경기장' '성사얼음마루' '꽃우물수영장' '고양별따기배움터' '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덕양몸과마음담음터' 등 여러 시설에 수영, 빙상, 헬스, 에어로빅, 암벽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타 사설기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가족 종합예술 체험장으로 한층 각광 받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덕양어울림누리는 고양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2004년 공연장을 개장한 데 이어 2005년 10월 초대형 종합체육시설을 개장하게 되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곳은 그 동안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고양시민들의 목마름을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산, 화정, 원당 등 주변에 사설 체육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리상 불편하거나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사실상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규모의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덕양어울림누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덕양별무리 경기장' '성사얼음마루' '꽃우물수영장' '고양별따기배움터' '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덕양몸과마음담음터' 등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수영, 빙상, 헬스, 에어로빅, 암벽등반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타 사설기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각광을 받는 프로그램은 남

녀노소 사계절의 운동이 되어 버린 수영과 스케이트이다.

특히, 수영장은 전국체전 개최가 가능할 정도인 50m x 10 레인의 국제적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다른 수영장과는 달리 염소처리기가 아닌 소금을 전기분해하는 오존처리 및 역세척 방식을 써서 한층 쾌적한 수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용인원도 500명이 넘는다. 또한, 성사얼음마루에 있는 아이스링크는 31m x 60m 넓이의 지상 1면, 지하1면으로 되어 있으며 2,607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어 어느 타 기관의 시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밖의 각종 편의점과 시설대여점을 갖추고 있어 회원들에게 기타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집회행사 및 놀이마당이 이루어지는 별무리경기장과 콘서트, 오페라, 연극 등 다목적 행사장인 어울림극장이 있으며 별무리경기장인 인조잔디구장은 체육행사가 있을 경우 시간당 약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대관도 가능하다. 인조잔디구장은 기존의 천연잔디의 단점을 보완하여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많은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이 되고 있다. 이밖에 학교체육과 연관되어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줄넘기, 농구강좌와 곧 시설완료 후 개설 될 유아체능단과 암벽등반 프로그램도 기대가 된다.

수영장과 빙상장 등 각 종목들의 회원 접수는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으로 나뉘어져 인터넷으로만 접수되고 있으며 기존회원은 매월 19~21일, 신규회원은 매월 23~25일 3일에 걸쳐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회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현재 5개의 노선이 있으며, 운영관계자에 의하면 고양시 전체에 운행되지 않아 간혹 운행이 안되는 타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개관한지 얼마 되

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바 다소 시설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성숙된 고양시민의 의식으로 지켜봐 주고 기다려 주기를 부탁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학동안 수영, 스케이트는 방학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꽃우물수영장



▲성사얼음마루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나들이 장소로도 적격

문화행사의 장인 고양어울림극장에서는 2월에는 새해맞이 꾸러기음악회와 독일 월드컵 컷송 기원 갈라 콘서트 등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아이들과 문화 나들이도 해 볼만 하다. 주 5일제가 많은 기관에 시행되면서 여가시간의 활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우리 고양시에 이러한 대형 체육·문화시설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자랑거리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재산인 이러한 시설을 바르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운영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고양시가 되길 바란다.

인터넷 주소 : 고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part.hys.or.kr>)
대표전화 031-960-0300

명예기자 손미경 prettysmk@yahoo.co.kr



문화인 생각

설치미술가 홍현숙

홍현숙(48세)씨는 현재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문화도시 고양'을 생각하는 문화인의 모임(고.생.모)에서 문화예술교육팀을 맡고 있으며, '미술인회의' 여성소수자 분과장을 맡고 있다.

그녀의 설치 미술 작업은 전시장을 벗어나 주위의 공공장소에 버려진 회색빛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옷이나 풀과 털 등 다양한 오브제로 빈 공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아름다움을 다시 재조명하는 창조적 문화예술 작품 활동이다.



하늘아래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그 소중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육교에 옷을 입히고(2000년 인사동 육교 프로젝트: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공모 당선작), 지하철 열차에 금강경 점자방을 만들었다(2001년 불교미술프로젝트, 지하철 5호선 내부: 그룹전), 국립극장 대극장 계단(제4회 은닉된 에너지전: 개인전)의 대단한 위엄에 옷을 덮었다.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이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추진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작가.

2005년 8월 개인전<풀과 털>에서 작품을 위해 삭발을 하고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호함에 기대지 않고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 과연 그녀가 지속

적으로 이야기하는 '은닉된 에너지'란 무엇일까. 아름다우나 제 아름다움을 전하지 못하는 뒤컨의 존재에 대한 대변일까 ...

아름다움을 전하지 못하는 뒤컨의 존재에 대한 대변

혼자서 책읽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미술부 선생님은 미술평론가를 권하셨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작품만큼이나 뛰어난 깊이로 자신 작품을 표현해 낸다. 1976년 그녀는 미술선생님의 전공을 따라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했다.

그녀 작품의 고유 오브제는 '옷'이다. 옷을 작업에 쓰게 된 계기는 단순히 옷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에 옷이 집에 무지 많아서였다고 한다. 그녀가 조소과를 졸업할 당시 대부분의 조각 작품들은 돌이나 나무, 브론즈 따위를 사용했지만 자신은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옷을 가지고 작업해왔다고 한다.

'옷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숨을 간직한 것.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진무해준다 ... 그러나, 옷으로 하는 작품은 영구적이지 못하다. 인간 목숨의 칠십년과 내 작품의 일주일. 일시적이어서 오히려 아름답다. 이 맹목적인 자본의 시대에 돈이 되지 않는 작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가?...작업에 쓰는 옷은 새로 만든 옷이 아니다.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것.

그것들은 내 작품으로서 태를 바꾸어 쓰이다가 또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작업은 순환의 사이클에 역행하지 않는다. 거대한 자연의 소리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다. 나는 나의 작품이 문명의 쓰레기가 되어 이 지구를 더럽히게 할 순 없다.'

제4회 은닉된 에너지전(1998년)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계단 야외설치전에서 글·홍현숙

하지만, 이번 개인전에서 그녀는 '옷'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대중들은 그녀를 옷과 같이 연상하고 있는데... "작가가 자기 작품을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이번 작품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안공간 풀 2005년 기획 초대 홍현숙 개인전 <풀과 털>에서 작품 중 하나를 글로써 소개하면 바닥에 비스듬히 잘린 냉장고가 놓여있고 그 옆에 길다란 선인장이 놓여있다. 냉장고를 어떻게 잘랐는지 역시 그녀다웠다.

"냉장고는 가족들 간의 무언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것이 항상 채워지기 위해서는 간단치 않은 수고가 필요하지요. 냉장고에서 무심히 먹을 것만 찾는 것이 섭섭하여 아는 이는 냉장고를 안방에 놓았다고도 하더군요. 냉장고는 주부의 고단한 일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고단함으로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죠. 선인장에서 주목한 것은 가시인데요,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풀)은 강한 생명 에너지이지요, 삭발은 여성에게 자기 확대의 상징이지만 또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털)은 좌절로 끝나지 않는 긍정을 의미하고, 같은 맥락으로 선인장의 가시도 황량한 사막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설치미술은 버려진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일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지원으로 추진된 '2005년 지방문화회관 특별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이 있었다. 이에 고양문화재단은 총 9개의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는데, 2005년 12월에 그 마지막으로 고양시 능곡에 위치한 어린이 공부방(푸른교실 반디교실)이 선정되었다. 홍현숙씨는 이 프로그램에 미술인 회의대표로서 "설치미술가와 함께 우리 동네를"이란 이름으로 여러 강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을 무대삼아 설치미술을 펼쳤다. 서로 바꾸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작업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공부방 입구부터 실내문과 창문과 벽면, 기둥을 새롭게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변화시켜 보는 활동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 아이들은 내가 사는 공간을 스스로 아름답게 변화시켜보는 흥미로운 체험을 맛보았으리라. 그녀는 '설치작업은 전시장을 벗어나 주위의 공공장소, 버려진 회색빛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화엄경에 "마음은 화가처럼 갖가지 오음을 그리나니, 모든 세계 중에 만들지 않은 법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가 그렇고, 부처와 같이 중생이 그러하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라고 한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작가는, '마음'을 미술로 '부처'를 불교로 '중생'을 공공으로 바꾸어 보고자 한다. '미술은 화가처럼 갖가지 오음을 그리나니, 모든 세계 중에 만들지 않은 법이 없다. 미술과 같이 불교가 그렇고, 불교와 같이 공공이 그러하니 미술과 불교와 공공의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불교 미술 프로젝트(2001년)에서 글·홍현숙

전익숙 명예기자 eui2@freechal.com

정례회 및 임시회 안건처리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4건, 기타 13건으로 총 31건. 이들 안건 중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안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 일산동구청에 신설된 중산동에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
- 백석동에 있는 소각시설의 내구년수가 도래되고 시설 노후화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신기술로 대체하여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인근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함.

○ 고양시 민속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속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시 전시관 관장이 소속 직원 및 수탁사업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와 함께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

- 전시관의 관람 시간이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정기 휴관일을 폐지하여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관 관람시간(변경) : 하절기(4 월~10 월) 10:00~18:00, 동절기(11 월~3 월) 10:00~16:00

○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수한 학술, 교육, 연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를 운영하여 오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각종 자료의 관리상 신규·수정·삭제 등 각종 정보의 변동시 신속한 자료의 갱신기간을 7일 이내로 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유지토록 개정하고, 유지 보수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모든 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시 7일 이내로 처리·통보토록 하

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각종 자료의 제공은 신청목적 외에 사용 시 제한 규정을 위반·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적용하던 수치지형도 수수료를 종이 지도시 매수 당 3,100원부터 4,000 원, 수치지도(디스켓 등)는 1 도엽 당 14,700 원부터 27,000 원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키 위하여 개정함.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 백석동 7 블럭에 백석동경로당을 신축하고, 주교동에 주교 2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
- 탄현동에 고양시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에게 체육시설과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기능회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조사·연구를 병행하고자 함.
- 용두동 소재 도지정 보호수가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보호·계승함.

○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수를 “250 명이상”을 “200 명이상”으로 조정함.

○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업별 예산제도 확대시범기관 선정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 정원 증원, ‘2006 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정원 보강,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을 위하여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정 원 : 2,055 명 → 2,074 명 (증 19 명)

▶ 증원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계	19	19	3	6	7	3
한시 인력	복식부기 추진 인력	6	6	1	1	4
	지방행정 혁신 인력	2	2	1	1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2	2		1	1
	과거사 정리 관련 한시인력	1	1		1	
상시 인력	보육담당공무원 인력보강	8	8	1	2	2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 보호관리사무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생략이 가능한 업무처리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행정사무를 간소화함.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장애인 보호관리의 단위사무를 추가함
 1.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무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장애인 보호관리의 단위사무를 추가함.
 1. 장애인의 장애등급 조정사무

○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채권추심 전문가(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사회산업위원회

○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양상의 변화로 재택 진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양상의 질적수준향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져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간호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고양 화훼산업특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현재 조성중인 고양 화훼단지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고양 화훼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전문화·규모화 된 수출화훼단지로 조성하고, 화훼품종의 개량사업 등으로 화훼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며,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화훼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



1. 특구의 명칭 : 고양화훼산업특구
2. 특구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원당동 일원
3. 특구의 면적 : 333,584 m²
4. 특화사업
 - 품목별 화훼수출단지 조성 사업
 - 화훼품종 개량 및 기술지도 사업
 - 꽃 축제 활성화 및 꽃 도시 이미지 조성 사업

도시건설위원회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주거용 비율을 현행 70퍼센트 미만에서 9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허용용적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 규정 완화를 통하여 침체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기존 도심지역의 거리 활성화, 상가활성화를 도모함.

○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민간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목적사업의 집행이 끝나고 채납정리만 남은 사업이므로 과다한 잉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종전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기존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함.
- 옥상간판의 설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60m 이상 설치시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를 의무화함.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던 것을 4분의 1 이내로 강화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함.

○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약 36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고 철저히 반영되어 대규모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놀이터·노인정·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주변지역과 도시기능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5-1 번지 일원에 기존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던 시설의 증설을 위한 것으로 증가되는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 예정토지의 보존가치, 기존 불법점유 지역의 관리실태, 인근 도시개발예정지의 주거환경저해 요인과 해소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합리성을 수반 되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함.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행 고양시 관리지역 면적 43.326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3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사전에 주민공람공고시 접수된 민원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함.

1.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부대 협의를 득한 토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검토한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줄 것.
2.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용도지역을 정형화, 집단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므로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거나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합리성 있게 추진할 것.





김 범 수
(백석동)

고양시 복지정책의 현실과 발전방향

관점과 틀 그리고 논점

복지정책에는 몇가지 논점들이 있다. 먼저, 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가이다.

두번째는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하여야 효율적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세번째는 복지수혜자의 도덕적 헤이로서, 수급기준을 넘어서는 생활수급자의 존재이며, free rider의 문제이다.

네번째는 복지정책의 집행자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급 문제와 복지 전문 과단위의 신설과 같은 조직의 문제이다.

다섯번째는 세부적인 복지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이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그 형평성문제, 장애인단체에대한 수의계약, 노인복지사업의 급증과 계층별 형평성문제 등이 고양시의 현안이다.

복지예산에서 나타난 고양시 복지 정책

고양시의 복지예산은 2003년이후 계속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기준 15%를 상회하였다. 이 수치는 고양시의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요구되어 오던, 일반회계의 15%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비교표이다.

2003-2006년의 복지예산

(단위:억원)

년 도	2003	2004	2005	2006
사회보장비	540	658	711	1024
일 반 회 계	5248	5930	5508	6529
일반회계대비비율	10.3%	11.1%	12.9%	15.7%

복지도시고양을 향한 발전방향

먼저, 지역별 사회복지센터 건립이다. 이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 전담 복지관을 활용 혹은 건립하여 지역안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계층 전체에게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둘째, 복지예산의 확충이다. 사회보장비 예산을 일반회계의 20%수준으로 확대하여 1차적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복지 수혜계층에 대한 요구를 정책사업화하는 것이다.

셋째,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정책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관뿐만 아니라 민의 영역인 복지 수혜자와 시민단체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복지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가 함께 조정하는 회의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가족회복 복지도시의 실현이다.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보육지원을 확대하며, 결손가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양노원 및 노인주택과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업률 0%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 여성, 노인, 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마련하고, 구인과 구직의 one stop 서비스 구축을 ON OFF Line으로 만들며, 분기별로 실업률을 조사 및 발표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 실업해소의 주체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기능중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고용과 교육이다. 이중 복지와 고용은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고양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정책결정체계에 민·관·학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업대책을 세울 때 고양시는 진정한 복지도시가 될 수 있다.



심 규 현
(대화동)

고양시 세수 증대방안

고양시는 갈수록 세수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요구하는 예산은 급증하는 반면에 세수입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고양시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조를 넘는 예산 총액, 90%이상의 건전한 재정자립도는 고양종합운동장,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국제전시장 등 수천억원 대형사업 진행의 밑거름이었지만, 이로 인해 시재정이 허덕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필요 예산에 비해 예산 수입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는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대형사업 예산처리과정에서 보듯이 매년 예산상황에 따른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고양시 예산계획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고양시의 인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급진적으로 변동했고 최근에는 변화정도가 점진적이 되었지만 그 결과로 요구되어지는 세출요구가 극대화된 반면, 인구증가에 비례한 “점진적” 세수증대는 급격하게 팽창한 고양시의 재정적 압박 해결에 별반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 활성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IT산업 관련 사업장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유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고급 및 선도기능이 결여된 재래·영세형 산업구조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부지 소요가 적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고양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LG Philips LCD의 파주시 입지와 이의 막대

한 파급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DT(Display Technology Institute)의 설립은 고양시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자 도약대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경기북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의 두뇌센터 역할을 할 DT의 설립, DT의 창업보육 시설과 시험 공장(pilot plant)을 활용한 부품·소재·장비 업체의 창업 및 유치,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집적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 업체들의 추가적인 투자, DT를 기반으로 한 테크노파크의 활성화, 전후방 연관 산업들의 발달,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등이 차례로 이루어지면서 고양시는 첨단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훌륭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 항공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DT 운영이 시작되는 2007년에 270억원, 2011년에 55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수증대 효과는 2007년에 9억원, 2011년에 190억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DT 설립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고려한 것이며, DT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고, 이러한 클러스터가 고양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할 때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 특화라는 시의 핵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과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던 고양시로서는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측자료이지만, 이러한 가능성과 고양시의 현 실정을 연관하여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수입 증대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4執에 4忍에 산다



이재황
(성사2동)

노인은 4가지를 잘 참고, 4가지를 항상 들고 부지런해야, 건강한 몸으로 가정의 구성원으로 존경받으면서 잘살 수 있다. 나이 60만 되어도 나이 들었다고 일거리도 없고 축 늘어진 걸 늙은 이들이 자꾸만 늘어간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잘 다듬어야 자신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사랑을 채길 수 있어서 늘 고마운 어른으로 대접 받고 살 수 있다.

그 방법에는 4가지를 항상 잡고 있어야 할 것(4執)과 4가지를 참아야 할 것(4忍)이 있다.

4가지를 항상 잡고 있어야 할 4執은

그 첫째가 생선이다.

밥 먹을 때마다 한 손에는 생선 토막이 항상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구차하게 남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경시하여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보니 좌절해서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제 팔에 꺾여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집마다 환자들이 하나씩 방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의 생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두번째는 잡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글 쓰는 펜이다.

나이가 들수록 항상 펜을 들고 있으면서 지난 일을 반성하고 하루 일을 정리하여 머리를 맑게 하고 살아가면 치매를 예방하고 빨리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

세번째는 아기 포대기를 잡고 있어야 한다.

집안에 어린 아기를 앓고 업고 지내면 다른 가족들의 양육하는 일에 힘도 덜고, 가족간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가족들의 인식도 저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집안의 일중에 하나인 아기 키우기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되어서 가족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네번째는 빗자루를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

노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서 수시로 주변을 부지런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는 동안 자기 몸도 깨끗해져서 냄새도 안 나고 건강도 좋아지므로 다른 사람들의 인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참아야 할 4忍이 있다면

첫째는 말을 참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어느 자리에서나 입이 마려워서 잘 참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끼어들고 싶어진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준비하게 널린 정보 뉴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체험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괜히 한마디 하다가 당장 알파한 지식이 들통 난다.

두번째는 먹는 것을 참아야 한다.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 망신스럽다. 더구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서 굴러다니게 되고 보기에 안 좋고, 변비에 걸려 힘쓰다가 머릿속의 혈관이 터져서 일찍 죽게 될지도 모른다.

세번째는 벌리는 것을 참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아무 곳에서나 다리를 벌리고 앉고, 아무대서나 속옷을 풀어헤치고, 등이 다 들어나게 옷을 입게 되면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 추한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다.

네번째는 보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한다.

살다보면 사랑하던 첫사랑이 보고 싶고 손주가 자주 보고 싶어지더라도 참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뒷감당을 못하는 것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노인이 되면 집안에 걸린 귀한 액자처럼 걸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자기를 수시로 챙기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일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살기 좋은 고양시의 완성을 위하여



양 효 석
(효자동)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북한산 정기와 창릉천, 곡릉천, 고봉산, 행주산성, 한강 등 보장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주도역량을 발휘한다면 90만 시민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살기 좋은 고양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을유년 새해를 맞은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일년 동안에 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지역에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행여 부족함과 잘못된 없었는지! 지난날들을 뒤 돌아 보며 후회하고 반성해 본다.

내 인생에 주어진 듯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매년 다짐하고 후회하고 고쳐가며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한번 되풀이하고 마는 한 해가 되었다.

병술년 새해에는 정말 후회없는 한해가 되도록 두손을 불끈쥐고 마음속 깊이 다짐한다.

우리 고양시는 복 받은 도시로서 보편적으로 재난재해가 적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지역에는 지난 20여일간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3,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우리가 사는 고양시에는 큰 피해가 없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재해가 적은 복 받은 도시 고양시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우리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대답하였다.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법과 질서 속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 고양시에는 현재 시공중인 일산아람누리 와 같은 여러 대형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곧 준공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양시청과 일산서구청 청사, 각 구의 보건소 청사 등 반드시 있어야 하는 20여개의 대형사업들이 신규로 발주하여야 할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과제들은 우리 고양시 지방재정이 건실해지면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고양시의 관문인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의 개발사업과 대·중·소 1종 주거지역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현재 거주자 모두가 불편없이 재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을때 정말로 살기 좋은 복된 신흥도시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북한산의 정기와 창릉천, 곡릉천, 고봉산, 행주산성, 한강 등 자연의 흐름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주도역량을 발휘하여야 90만 시민의 신뢰와 믿음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공동체 의식의 가능성



정 윤 섭
(행신2동)

동료의원들과 목포를 방문하고 귀환하는 날 목포역 KTX 전광판에 종착지가 ‘행신역’이라는 알림문구가 표출될 때 느꼈던 뿌듯한 감동의 순간만큼 고양시 의원신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 자신 비록 행신역 시발역사 유치대열의 전면에 나서 관계부처와 철도청을 상대로 투쟁과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동료의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역사유치위원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렵게 생취한 하루 16편의 시발편수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시발역사 기능을 유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성원과 힘을 보태주고 계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역사유치위원회 모든 분들께 한없는 존경심을 표하고자 한다.

반면, 행신동 무원초등학교 앞 2차로 도로에서의 빈번한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라나는 새싹들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렇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뇌리에 지우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1천여 엄마들을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 드린 후 서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급성을 시집행부에 강력하게 개진하여 통

학로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어렵사리 배정받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다소나마 그 아쉬움을 줄일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꿈이 있다

이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 각급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밖에, 사회문화 인프라가 절대 부족했던 행신동 소만마을에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인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유치했을때 지역주민과 교육관계자들의 축하인사와 함께 감격을 함께 했던 기억은 지역공동체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좋은 선례가 아닐 수 없었다.

2006년 새해는 제4대 의회가 막을 내리고 제5대 의회의 서막이 열리는 해다.

매사가 그렇듯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꿈이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욱 새로운 법이며,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에 기대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오는 7월 구성될 제5대 고양시 의회도 이런 요소들이 충만한 가운데 고양시민 모두의 축제분위기 속에 출범하기를 고양시 의원 신분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잔뜩 기대해 본다.



시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 시민의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께서는 E-mail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jaewoncho@goyang.go.kr 전화: 965-5014 ~ 6, FAX: 967-8045

탄현역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해 주세요

서충열(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동 경성 큰마을 대림아파트 101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성 큰마을에서 탄현역사까지 철길 옆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주시면 큰마을 주민생활의 편리성이 훨씬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탄현동 경성큰마을에서 탄현역사 경의선 주변은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경의선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동부지내 도로개설 계획은 없으나 지역주민들의 탄현역 이용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향후 동지역내 완충녹지대 조성시 산책로(보행자도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라산 제2근린공원에 카센터와 세차장이 웬 말입니까



배철호(덕양구 행신동)

‘시민의 소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시의회를 만드는 작은 공간입니다. 고양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시민의 울골은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부>

덕양구 행신3동 햇빛마을 21 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단지 옆에는 행신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운동하는 가라산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카센터 및 세차장이 들어 설려고 한창 공사중입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신선한 공기와 풀벌레 개구리의 울음소리대신 고약한 자동차 매연과 시끄러운 정비 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공사장의 위치는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가라산공원 입구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카센터와 세차장이 들어 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어가는 공원을 보호해 주시고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쾌적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보존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주변에 건축되는 카센터건물은 적법하게 허가처리된 상태에서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허가사항중에는 세차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는 강제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가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협의점 모색을 위해 주민 요구시에 해당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류우드로 거듭나는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며

지난 12월 16일 한류우드 착수 선포식을 시작으로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대의 30만평에 대한 한류우드의 사업추진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경기도에서 한류우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제영향평가, 각계 담당자들과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개월 만에 본공사를 개시한 것이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선포식에는 5천여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반영했다.

한류우드는 '한류(韓流)'와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성해 만든 말. 아시아 퓨전 문화의 중심지를 꿈꾸는 한류우드에선 한류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과 동남아 각국의 대중문화와 관광산업, IT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컴퓨터 게임산업 등이 한데 어우러진다. 한류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 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류우드에는 한류 IBC(국제비즈니스센터), 테마파크, 호텔, 한류벤처센터, 영상제작스튜디오, 미디어교육센터, 한류뮤지엄 등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류는 10년간 지속되어왔을 뿐 아니라 거듭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회

한류우드는 한류로 표출된 한국인의 문화적 잠재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환원시키는 산업인프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막대한 수익으로 한류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 논의도 분분했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가장 앞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일단 다른 지역보다 앞서 한류의 흐름을 선점할 것으로 보이며 파급효과도 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류우드는 한류로 표출된 한국인의 문화적 잠재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환원시키는 산업인프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막대한 수익으로 한류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학규 지사는 한류우드 조성과 관련 “역동적인 한국의 신세대 대중문화에 세계 최강의 IT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동아시아 문화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류우드가 조성되는 2008년에는 북경을 텀픽이 열려 국내로 유입되는 문화관광 특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인한 국내적 파급효과는 고양시 일대의 한류우드를 필두로 부친, 광명, 양주 등을 잇는 한류벨트화를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미디어이터(중재자)로, 남북을 잇는 미디어이터이고, 한국, 일본, 중국을 잇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헤드쿼터로 발전할 것이다.

국외적 파급효과는 미래 문화실크로드인 한류우드가 한류를 지속·확산시켜 한국의 문화나 상품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인, 국제적인 위상까지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우드가 조성되면 연간 60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8조 3천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만 2천 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류우드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어 기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고양시나 경기도로서는 국제적인 도시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가히 하나의 새로운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셈이다.

굴뚝 없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터전을 고양시에 구축함으로써 고양시가 국제적인 위상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국국제전시장

www.kintex.com

2006 경향하우징페어

- 기간: 2006년
2월 17일(금) ~
2월 22일(수)
- 장소: 킨텍스 전관 및
옥외전시장
- 주최: 경향하우징, 경향
신문사
- 전시목적: 바르고 유
익한 주택정보제공과
건축자재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관
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2006년 건축자재
Trend 제시, 쾌적한 주
거공간 창조
- 전시품목: 공구 및 건
설장비/기계, 구조재, 급수/위생설비재, 내·외장재 부문
(실내외 마감재), 냉난방/환기설비, 조경/전기 설비재, 도
장재, 방수/단열재, 조경재 등
- 입 장 료: 5000 원
- 홈페이지: www.khfair.com, www.ehousingfair.com

담당자: 김대정 차장 ☎ 02-3701-1600



덕양어울림누리

www.artgy.or.kr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새해맞이 꾸러기 음악회〉



- 기간: 2월 11일(토) ~ 2월 12일(일)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입장료: A석 2만 5천원, B석 1만 5천원
- 관람층: 8세 미만 어린이도 가능
- 특징: 즐거운 방학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차이코프
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요한스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등
신나는 연주를 윤기연씨의 지휘아래 감상할 수 있음. KBS 성
우 정미경씨가 출연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며, 동요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되며,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손뼉치고 노래할 수 있는 열린음악회임.

월드컵 D-100 기념 독일 명문 프랑크푸르트 심포니 초청

〈독일 월드컵 첫 승 기원 갈라 콘서트〉

· 기간: 2월 28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고양어울림
극장
- 입장료: 으뜸자리
8만원, 좋은자리
6만원, 편한자리
4만원, 고른자리
2만원

- 관람층: 24개월 이상 입장가
- 특징: 2006년 6월 13일 독일 월드컵 한국의 첫 상대인 토고전이 열리는 차범근 신화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이곳을 대표하는 명문 프랑크푸르트 심포니를 초청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명곡, 뮤지컬 하이라이트, 월드컵 찬가 위주로 화려하고 즐거운 곡으로 월드컵 D-100을 기념. 소프라노 김원정, 테너 임태경이 함께 무대를 장식.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 기간: 3월 5일(일) ~ 3월 12일 (월요일 공연없음)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입장료
 - 평일: 모시는자리 13만원, 으뜸자리 8만원, 좋은자리 6만원, 편한자리 4만원, 가장자리 2만원

- 주말: 모시는자리 14만원, 으뜸자리 9만원, 좋은자리 7만원, 편한자리 5만원, 가장자리 3만원
- 특징: 국내 초연의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공연, 2006 아시아 & 유럽 투어 '한국 단독 공연' 역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공연 중 가장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나 가장 원작에 충실한 공연으로 뮤지컬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주옥같은 음악과 제롬 로빈스의 원작, 에너지에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연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조이 맥닐리가 브로드웨이 정통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힘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제2회 하늘을 향하는 새 - 꿈꾸는 날개

- 기간: 2005년 12월 13일 ~ 2006년 2월 7일



- 장소: 어울림미술관 제 1, 2 전시장 및 덕양어울림누리 내
- 입장료: 일반 3000원, 초중고 2000원, 미취학 아동 1000원,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 특징: 덕양어울림누리의 상징인 '새'를 주제로 매년 기획 방식과 시각을 달리하여 예술에 나타나는 새와 그 의미를 조망해 보는 전시이다. 새의 근원적 의미와 더불어 예술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현대의 미술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느껴볼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은 놀이터'도 진행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생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미술관 전문 교사와 함께 전시를 심도 있게 감상하고, 그것을 토대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Paper&Meaning - 유럽종이와 한지의 만남

- 기간: 2006년 3월 3일(금) ~ 4월 4일(화)

- 장소: 어울림미술관 제 1, 2 전시장 및 덕양어울림누리 내

- 특징: 2004년 핀란드에서 처음 선보인 전시로서 에스토니아, 덴마크, 노르웨이를 거쳐 2006년 한국에서 소개되는 국제적인 전시이다. 유럽의 종이와 한국의 한지를 소재로 하여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인 종이의 예술적 실험을 추구한다. 종이에 대해 흥미를 가진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 새롭고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 내고 새롭게 발견되는 한지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한지 유물도 함께 소개되어 종이와 종이 가 가진 무한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덕양어울림누리에는 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어울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문의 및 예매처: 고양문화재단 1544-1559 www.artgy.or.kr 한글인터넷주소: 어울림누리
 ※ 높빛 사랑의자리(사랑티켓:960-9739, 9680)를 이용하면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중남미 문화의 향기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아시아 유일의 중남미 테마 박물관



차가운 칼바람에 코끝이 아리기도 하지만 양 볼에 와 닿는 겨울 공기가 상쾌한 요즘 따뜻한 중남미 문화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통일로 문산 방면으로 가다가 벽제 못 미쳐 대자 삼거리에서 우회전, 39번 국도를 타고 직진하면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1 번지에 위치한 중남미문화원(www.latina.or.kr)이 나온다. 멕시코풍의 아치형 목재 현관문을 들어서면 경쾌하면서도 잔잔한 라틴음악과 천장의 황금빛 태양상, 그리고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는 오묘한 빛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아준다. 화려한 색상의 정

원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마치 해외로 여행 온 착각이 드는 중남미문화원(원장 : 이복형)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중남미 테마 박물관으로 지난 1994년 중남미 국가에서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이복형(李福衡, 74), 홍갑표(洪甲杓, 72)씨 부부의 노력으로 문을 열었다.

외관부터가 웅장하고 멋스러운 이 박물관 건물은 제2회 고양 건축문화상 대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이기도 하다.

중남미 문화는 아시아에 뿌리를 둔 인디오 문화와 16세기 이후 300여 년간의 유럽문화 및 다민족 이주민들로 형성된 문화가 혼합된 문화로, 이 곳 문화원은 5,000 평의 대지에 박물관, 미술관, 야외전시장, 휴게소, 기념품점, 강의실(100석), 영상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박물관에는 토기관, 석기관, 목기관, 가면관, 민속공예관, 생활관의 6개 주제별 전시실이 있으며, 1997년 9월에 개관한 미술관은 중남미 화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술관 입구의 야외전시장에는 빅토르 구티에레스(V. Gutierrez)의 푸른색 옷을 걸친 청동 여인상을 비롯하여 잔디밭 곳곳에 돌로 된 작은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각 전시관 사이의 복도에는 가톨릭과 인디오 종교가 혼합된 중남미 조각물들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2개국 중남미 작가들이 기증한 조각품 25점이 전시돼 있다.

이 곳 문화원은 평상시 보기 힘든 코스타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 모은 다양한

토기와 석기, 목기, 가면, 희귀 민속공예품 등 3,500여점의 소장품이 전시돼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중남미 문명의 주신(主神)인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의 조각상, 1300년 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람의 심장을 꺼낼 때 썼다는 칼, 마야 피라미드의 조각이라는 돌덩이, 부리부리한 눈과 두툼한 입술을 가진 조각상, 원주민이 쓰던 악기, 영화에서나 보던 축음기, 만들어진 중남미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문화체험과 함께 하는 현지 음식도 별미

이곳에서 만난 유재훈씨(57.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는 “실제 중남미를 방문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중남미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음식을 직접 맛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오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온두라스와 멕시코



등 중미대륙을 품어했던 마야문명을 비롯해서 아즈텍 문명, 페루를 일궜던 잉카문명 등 고대문화의 전설이 숨 쉬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끼며 연방 탄성을 내뿜곤 했다.

또한, 현지음식 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하루 전에 예약하면 전통 스페인 요리(스페인식 볶음밥) ‘파에야(Paella)’를 비롯해 포도주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고(월~토 오전 12시~오후 2시) 고풍스러운 탁자와 운치있는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국적인 분위기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의 하나라는 샤프론의 노란 빛과 꼬들꼬들한 밥알이 인상적인 파에야는 해물을 삶은 국물에 불린 쌀을 익을 때까지 볶아내는 식으로 만든다.

원래 파에야는 스페인 남동부 곡창지대인 발렌시아 지방의 요리. 당시 목동들이 야외에서 토끼고기, 토마토, 강낭콩 등을 올리브 기름에 볶은 뒤 로즈마리로 양념을 해서 밥을 지어먹은 것에서 유래했다. 특히, 주말인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판매하는 타코는 옥수수 전병인 토르티야(Tortilla)에 다 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등을 잘게 썰어 양파, 파인애플 등과 섞어 구워 속을 만들고 매콤한 멕시코 양념을 곁들여 먹는 별미로 젊은층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

고양향교 바로 옆에 있는 중남미문화원은 1993년 5월 3일 비영리 문화재단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1994년 10월 6일 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박물관으로 등록된 것은 1994년 11월 1일이다. 그후, 1996년 9월에는 테마박물관으로 지정되었으며(경기도 96-1),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박물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문화원 개관시간은 연중 무휴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관람료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문의전화 : (031) 962-9291

송승환 명예기자 kangjincounty@hanmail.net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의장 권 봉 원
덕양구 원신·흥도동

(사무실) 031-961-2500
H·P:011-9055-4300
E-mail:kbwon48@hanmail.net



부위원장 박 순 배
덕양구 고양동

(사무실)031-963-7531
H·P:017-260-3220
E-mail:psb3220@hanmail.net



의회운영위원장 이 재 황
덕양구 성사2동

(사무실)031-964-2020
H·P:011-354-9292
E-mail:lih0113549292@daum.net



자치행정위원장 양 효 석
덕양구 효자동

(사무실)02-381-5010
H·P:011-686-5010



사회산업위원장 김 범 수
일산구 백석동

(사무실)031-902-8141
H·P:016-370-8141
www.gykbs.net
E-mail:gykbs@goyang.go.kr



도시건설위원장 최 경 식
덕양구 행신1동

(사무실)031-965-5015
H·P:018-303-8510
E-mail:cks080@naver.com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김 태 임
일산동구 마두2동

(사무실)031-905-3454
H·P:016-9237-3457
E-mail:chamwile@hanmail.net



강 영 모
일산서구 일산3동

H·P:017-239-0310
www.home.naver.com/
gyckym
E-mail:gyckym@naver.com



길 종 성
일산서구 탄현동

(사무실)031-977-3313
H·P:019-575-1961
www.kiljs.pe.kr
E-mail:js@kiljs.pe.kr



나 공 열
덕양구 창릉동

H·P:011-470-5090



엄 기 창
덕양구 관산동

(사무실)031-962-2261
H·P:017-351-8066
E-mail:eoumkichang@hanmir.com



이 봉 운
일산서구 송포·송산동

H·P:011-287-0045
E-mail:leebw53@hanmail.net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이 영 훈
덕양구 능곡동

(사무실)031-973-9800
H·P:011-397-1492



정 윤 섭
덕양구 행신2동

(사무실)031-979-3333
H·P:011-347-1211
E-mail:yunsup347@hanmail.net



조 문 환
일산동구 고봉동

(사무실)031-977-4488
H·P:017-220-5484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이재황
- 간 사: 이영훈
- 위 원: 강태희,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나공열, 박종기, 이창원

- 의장실 965-5012
- 의원실 965-5015
- 전문위원실 967-8049
- 의사담당 961-2522
- 부의장실 965-5013
- 사무국장 965-5014
- 의정담당 965-5016
- 의회홍보담당 961-2523

사 회 산 업 위 원 회

					
김혜련 덕양구 화정2동 (사무실)031-921-7001 H·P:016-758-2486 www.kimhr.pe.kr E-mail:kimhr1109@hanmail.net	김정무 덕양구 화전·대덕동 (사무실)02-3159-8778 H·P:011-277-9973	김현중 일산동구 식사·풍산동 (사무실)031-965-5012 H·P:011-233-6770	박윤수 일산동구 마두1동 (사무실)031-907-6785 H·P:011-796-4055 E-mail:pys6785@hanmail.net	박종기 덕양구 행신3동 (사무실)031-978-6003 H·P:018-281-2351 www.jkpark.or.kr E-mail:dc2351@hanmail.net	배철호 덕양구 행주동 H·P:011-9271-2345

사 회 산 업 위 원 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심규현 일산서구 대화동 H·P:017-230-9966 E-mail:skhsaga@orgio.net	이택기 덕양구 주교동 H·P:011-359-5961 E-mail:sernong@hanmail.net		김달수 덕양구 화정1동 (사무실)031-921-7001 H·P:016-220-0089 www.dalsu.pe.kr E-mail:kimds@ktem.or.kr	강태희 덕양구 신도동 (사무실)02-381-6455 H·P:011-417-4666 www.kangtaehee.pe.kr E-mail:uiop4777@hanmail.net	김경태 덕양구 성사1동 (사무실)031-967-7373 H·P:011-355-7373 E-mail:sungsai@hanmail.net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김유임 일산서구 주엽2동 H·P:010-4655-7729 E-mail:kyouim@hanmail.net	박복남 일산동구 정발산동 H·P:016-352-3344	박윤희 일산서구 주엽1동 H·P:011-9866-2697 www.uny.pe.kr E-mail:uny@uny.pe.kr	이건익 일산동구 장항1·2동 (사무실)031-904-4005 H·P:011-775-4384 E-mail:janghang12@hanmail.net	이창원 일산서구 일산1동 H·P:011-290-3218 www.infocommunity.co.kr/kw E-mail:ichango@hanmail.net	최성권 일산서구 일산2동 (사무실)031-976-1357 H·P:017-360-4397 E-mail:love0531sk@hanmail.net

“슬픔은 이제 그만, 행진 앞으로, 행진 다같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반도체 업계의 우수한 인재로서 외국인 회사에서 국내외를 오가며 소위 잘나가던 그에게, 젊음이 푸르던 36세 때, 결혼하여 아이들이 5살, 3살이었을 때 1993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의식마저 없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 시절을 그는 이야기하기 힘들어 했다. 2년간 병원에서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지내면서 자신과 장애의 몸을 부정했고 외부와 단절하며 어찌면 지금 정도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으면 나쁜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고 말을 흐렸다.

기억의 혼돈과 마음 속에 치미는 분노, 사고의 충격은 대부분의 중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했다.

하지만 어차피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그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선 휠체어에 앉는 것부터 시도했고, 처음엔 전동 휠체어를 타다가 점차 팔 힘을 길러 수동 휠체어를 타고 세상속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휠체어를 타고 길을 나섰을 때 장애인은 한명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아이들은 장애인이라고 놀렸을 때 그가 느낀 세상은 이전에 살던 것이 아니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깨고 나온 재기

우선 좁은 인도로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도 없었고 인도의 턱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는 이들이 많은데 그로 인한 사고 역시 많다고 한다. “사 회일원으로 활발하던 30, 40대 사람들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중도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고 해서 사회는 내팽개칠 겁니까? 아니면 아프니까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까?” 사실 장애인은 이동 한번 하려해도 돈이 많이 든다.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야하고 휠체어나 자동차 개조비용도 거의 개인부담과 다름 없어서 턱없는 수입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부분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들이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니다. 오랜 병에 점차 가족들은 떠나가고 결국 혼자 남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1,610,99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유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때문에 스스로 피하기도 하고,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록 절차(거주지 동사무소 신고)조차 밟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이라고 한다.

“죽기보다 다시 차를 타는 것이 싫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가려다가 1시간 반을 길에서 비를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애인 운전자에게 지원하던 LPG가스 차량의 연료비 지원마저 전체 사용량의 할인에서 월/250L 제한 지원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주차문제라고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없는 곳도 있을 뿐더러, 있다 해도

문제는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 중 누군가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스티커를 발부발하 공공 주차장에서 버젓이 '비겁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주차위반이고 나아가 공문서 위조라고 그는 분노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장애인 스티커는 반드시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을 때만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결심하였다. 우선 집이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 하나둘씩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먹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욕구인데 그의 회원 중 한분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탕을 갔다고 한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은 마치 두꺼비같이 그늘지고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믿지 않았죠. 같이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난 후 그분의 얼굴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그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1급 척수 장애인이지만 누구보다 장애인의 아픔과 불편함을 알기에 선두로 나선 것이다. 3년 정도 이어오는 '소망의 그루터기 봉사모임'이 그것인데 이 모임은 중증장애인을 간병하는 자원봉사자와 차량봉사자 그리고 일반봉사자들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30여분으로 구성되어, 주요 활동이 나들이를 겸한 목욕봉사이고, 의료봉사나 가정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거나 불편함 점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장애인 외면하면 선진국 될 수 없어

장애인 선교와 궁극적으로 사회참여,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모임은 기관 속에서 운영하기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기 위해 뜻 맞는 분들과 힘을 모아 사비를 털어 개인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종교인의 길을 걸으며 상담심리 공부도 계속하고자 한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소외와 우울을 상



당해주는 것 역시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서류상 형식적인 사회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나 사고를 당하면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장애인 역시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력입니다. 절대 그들을 외면해서는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때 연례적인 관심보다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사고가 나고 8년 후쯤 불행히도 그의 부인마저 자동차 사고로 척추손상 하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그때 그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괴로움, 슬픔은 이제 모두 뒤로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충청도가 고향이지만 속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아마도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유순한 청년이었을 것으로 보였다.

예고 없이 날벼락처럼 찾아온 사고는 그를 영혼까지 뒤흔들었지만 눈을 감고 깊숙이 자신을 돌아보면 그는 다시 강한 남자이다.

우리나라 초기 반도체 산업을 이끌던 그의 저력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 그의 손길은 수 천 수 만개가 되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약 2:7,8)

소망의 그루터기 봉사모임은 다음 카페 '행복을 여는 굴렁쇠' 안에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주실 분이나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장애인분들 혹은 그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 송인석 (017-232-0870)

전익숙 명예기자 eui2@freechal.com

주부 우울증에 대하여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치료해 주세요

환병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질환이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은 사회에서 장기간 깊어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이러한 환병이 현대에 와서는 빈집 지키기 증후군으로 나타나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있다.

주부는 가족에게 자신의 모든 여력을 쏟아 붓는다. 자신보다는 가족의 욕구가 우선이 되며 자신을 위해 행동하거나 자기주장을 우선하면 자기도 모르게 도덕성의 문제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다 40 대쯤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된 남편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들 뒤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고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의 반응처럼 불면, 식욕감소, 체중감소나 무가치함에 대한 집착 등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감정의 기복을 적절하게 극복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2 주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다음 문항을 체크 해 보자. 항목 중 4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내 마음도 치료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체중감소나 증가, 식욕의 감퇴나 증가 2) 불면이나 과다수면 3)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좌불안석이나 처진 느낌) 4)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의욕상실 5) 삶에 대한 무가치감, 지나친 죄책감 6)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7)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사고나 기도 및 계획 등의 증상

*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10계명

- | | |
|------------------------|----------------------------|
| 첫째, 단음식을 삼가라 | 둘째, 육류를 적게 먹자 |
| 셋째, 흡연을 금하자 | 넷째, 카페인 (커피, 탄산음료) 섭취를 삼가자 |
| 다섯째,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자 | 여섯째,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자 |
| 일곱째, 하루에 물은 8잔 이상 마시자 | 여덟째, 비타민 B, C등을 충분히 복용하자 |
| 아홉째, 햇빛을 하루에 20분 이상 받자 | 열번째, 적당한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하자 |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마음이 아파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당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침묵으로 다가오는 우울증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손미경 명예기자 prettysmk@yahoo.co.kr

의회방청을 해 보세요!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합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사무국 (전화:961-25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사일정

월별	회 기	기간	일수	주 요 처 리 활 동	비 고
1월	-	-	-	-	설연휴 (1.28~30)
2월	제 113 회 임시회	2. 6(월)~ 2. 13(월)	8	· 2006년도 시정(구정) 업무보고 · 안건처리	
3월	제 114 회 임시회	3. 7(화)~ 3. 15(수)	9	· 시정질문 · 안건처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정)	
4월	제 115 회 임시회	4. 4(화)~ 4. 7(금)	4	· 안건처리 ·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회개원 15주년 기념일(4. 15) 고양세계꽃박람회 (4. 28 ~ 5. 10)
5월	-	-	-	※ 지방의원선거 (5. 31)	경기도체전 (5.2~4)
6월	-	-	-	※ 결산검사 (20일간)	
7월	제 116 회 임시회	7. 3(월)~ 7. 5(수)	3	· 제5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 안건처리	
8월	-	-	-	-	을지훈련 (8월 중)
9월	제 117 회 제 1 차 정례회	9. 4(월)~ 9. 15(금)	12	· 시정 및 구정 업무보고 ·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 2005 회계년도 결산심사 · 승인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정)	9월 및 10월 하순 국내 · 외 연수
10월	제 118 회 임시회	10.16(월)~ 10.24(화)	9	· 안건처리 · 2006년도 행정감사대비 현장확인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추석연휴 (10.5~8)
11월	제 119 회 제 2 차 정례회	11.20(월)~ 12.15(금)	26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7년도 예산안 심의 ·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 2006 201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12월	제 120 회 임시회	12.20(수)~ 12.28(목)	9	· 안건처리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정)	

방청시기

- 정례회: 2 회 38 일
제1차 정례회
9. 4(월)~9.15(금) 12 일간
제2차 정례회
11.20(월)~12.15(금) 26 일간
- 임시회: 6 회 42 일

방청방법

당일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자주 둘러주세요!



<http://www.goyangcouncil.go.kr>

고양시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의사일정, 의정활동, 회의록, 의원소개, 민원게시판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고양시의회의 대외적 홍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공/모/합/니/다/

♣ 민간편집위원을 찾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시의회를 홍보하고 각종 제도를 시민에게 원활히 홍보하고자 고양의정소식지 민간편집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회는 분기별 2~3일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 선발인원 : 3명 (현재 편집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
- 공모기간 : 2006년 1월 19일 ~ 2월 18일(31일간)
- 응모자격
 1. 고양시민으로서 잡지사나 신문사 등에서 편집 및 디자인, 원고 기고 관련 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시인문인사진작가 포함)로 글과 사진을 기고하거나 기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모방법 :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1.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2. 습작품(원고지 5~7매 분량으로서 주제는 자유로움) 1부.
 - FAX : 031)967-8045
 - E-MAIL : jaewoncho@hanmail.net
 - 우편 : (우)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의회사무국 의회홍보팀
- 당선작 발표 : 2006년 2월 고양시의회 홈페이지(www.goyangcouncil.go.kr)에 발표
- 기타
 - 참가자에 대하여는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홍보팀(961-2521-3)으로 문의